

복합형, 숙박·체류형 관광객 늘어

'2016 전북 관광객 실태조사' 복합형 12.2%p ↑ · 숙박객 4.1%p ↑ ... 55.0% 재방문 시 전북투어패스 구입

전북을 찾는 관광객들의 관광 형태가 2개 시·군 이상을 잇는 복합형 관광객이 큰 폭으로 늘고, 숙박·체류형 관광객들도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연구원이 전북도 관광 현황의 정확한 이해와 명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보고서를 출간했다.

전북연구원이 발간한 '2016 전라북도 관광객 실태조사' 정책 브리프에 따르면, 전라북도 관광객의 전반적 만족도가 평균 3.80점으로 2013년(3.69점) 대비 약 0.11점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방문 의향 91.5%, 추천 의향

91.8% 등 관광객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1개 시·군을 방문하는 단일형 관광객이 67.9%로 2013년 80.1% 대비 12.2%p 감소한 반면, 2개 시·군 이상을 방문하는 복합형 관광객은 2013년 19.9%에서 32.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여행객도 44.4%로 2013년(40.1%) 대비 4.1%p 증가했으며, 당일여행객이 59.7%에서 55.0%로 감소해 관광객 체류시간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연구원 김형오 박사는 "관광 만족도 증가 및 체류시간 증대는 토탈

관광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라북도의 정책적·실천적 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결과"라면서, "전북 관광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전략적이고 탄력적이 대응책을 마련해 급변하는 관광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마련책 모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 관광객 중 약 55.0%의 관광객이 향후 재방문 시 전북투어패스를 구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관광객(28.3%)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거주 관광객의 구입 의향(36.1%)이 가장 높았다.

전북투어패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홍보강화 필요성'(57.5%)이 가

장 우선돼야 할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외 '이용서비스 다양화'(18.1%), '높은 제휴서비스 할인비율'(11.7%) 등을 중점 과제로 제기했다.

전북연구원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12월/1분기)로 전북 14개 시·군의 대표관광지에서 총 6,61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김형오 박사는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관광객 통계 데이터를 확보해 전북도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북 관광의 질적 개선 및 국내의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도, 백제역사지구 세계유산 '지자체 협력사업' 확대

전북도와 익산시 및 충남·공주·부여 등 5개 지자체와 출연기관인 (재)백제세계유산센터는 백제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3년차를 맞이해 세계유산 활용 관련 '지자체 협력사업'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익산시는 올해는 기 추진해온 홍보활동 이외에도 민간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민간의 자발적 참여(서포터즈제 운영) 및 후원제도(정화활동 참여, 모니터링, 재능기부)를 신설 운영기로 했다.

또한 3개 고도 주민협의회와의 후호적 협력 확대를 통한 활성화, 세계유산 문화관광해설사 심화교육과 택시 운수종사자 역량강화를 통한 세계유산 이해 고취 등 세심하고 실질적 영역에서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리고 세계유산 활용홍보사업을 지난해 3개사업(8,400만원)에서 올해는 일러스트 콘텐츠 공모전, 실감형 증강현실 콘텐츠 구축, 애니메이션 제작 등 신규 8개사업에 10억86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더불어 세계유산 보존관리 확대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센터와 자치단체에 24시간 모니터링(컴퓨터, 휴대폰)과 쌍방향 관계가 가능한 통합방범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관리체제를 공조하는 한편 총 64대의 CCTV를 설치하고 'CCTV관제센터'를 신설해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안재용 기자

도, 중국교육관계자 초청 팸투어 실시

전북도는 중국교육관계자 및 여행사를 대상으로 25일부터 28일까지 전주한옥마을, 무주태권도원 등 전북 대표 관광자원 팸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팸투어는 호남권 관광진흥협의회 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시와 전북도가 공동으로 추진해 청소년 교육관광객 및 수학여행단 유치를 목적으로 교육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호남권에 소재한 교육시설, 주요 관광자원 등을 탐방하여 직접 보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국 남경시 청소년 교류 및 교육활동 관계자로 구성된 이번 팸투어단은 24일에 광주 조선대학교를 시찰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광주과학관 등을 탐방한 뒤 25일부터 전북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했다.

/안재용 기자

송하진 지사, 무주군 찾아 희망대화 진행

'무풍 산지유통센터' 방문해 시설시찰 등 유통시스템 점검

송하진 지사는 24일 도민과 함께하는 희망대화 세 번째 방문지로 무주군을 찾았다.

이날 방문에는 황정수 무주군수, 백경태 도의원, 유승열 무주군 의장 및 무주군 지역 농협장, 사업관계자, 지역주민들과 함께 했다.

송 지사는 먼저, 무주군 '무풍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삼락농정 제값 받는 농업 실현을 위한 간담회 및 산지유통 시설을 시찰하고 무주지역 농협조합장과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산지유통센터 역할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무풍산지유통센터 사업현황, 성과 등 농산물 유통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장의 문제점, 애로사항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가 진행됐다.

송 지사는 "무풍 산지유통센터는 산지의 거래교섭력을 확보하고 기계화, 규모화를 통한 공동선별로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와 상품성을 높여,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며 "도에서도 다품목 소량생산, 개별 유통구조라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고, 유통과 판매, 마케팅은 지역 농협 등이 참여하는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서 책임지는 전문화된 유통시스템을 집중육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가 삼락농정을 추진하면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농번기 공동급식과 같은



2017 도민과 함께하는 희망대화가 지난 24일 무주군에서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와 황정수 무주군수가 무풍 산지유통센터에서 '제값받는 농업' 실현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산지유통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성과가 하나둘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송 지사는 무주군 안성면 두문마을을 방문해 '무주 안성 낙화놀이'의 보존전승, 활성화 방안을 통한 마을주민 소득증대방안에 대해 마을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

송 지사는 "안성낙화놀이 축제와 연계한 새로운 원예작물 개발과 체험형 먹거리 발굴을 통한 6차산업화 추진

으로 농가소득 창출"을 주문하고 "앞으로 주민의 열정과 의지를 이는 만큼 도에서도 문화재로서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 무주=전문선기자

도, 삼락농정위원회 출범식

전북도는 24일 농업인, 농업인단체 대표, 전문가, 유관기관 전문가 등 160명으로 제2기 삼락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송하진 지사, 이학수 도의회 농업경제위원장, 시·군 부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제2기 삼락농정위원회는 전체위원 160명중 농업인이 85명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농업 유관기관 및 전문가 56명,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간 10개 분과 및 운영협의회에서 전북 농정의 주요 현안문제와 정책을 발굴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안재용 기자

도,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개최

전북도가 결혼이민자 중심 다문화정책에서 외국인근로자 등 모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24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관련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전북에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전북도는 현재의 다문화가족 중심 지원정책에서 외국

인근로자, 유학생 등 모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지자체 차원에서 외국인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하는 곳이 많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내 다문화가족 및 이주민들의 추세에 따라 간담회 및 토론회, 세미나 등을 통해 전북형 다문화이주민 정책의 큰 틀을 모색하고 현실적인 정책 수요를 발굴해 도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안재용 기자

전북 SNS 관광기자단 발대식·워크숍

전북도는 24일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인 및 도내 유학생과 국내 거주외국인 등 20명으로 구성된 전북 SNS 관광기자단 발대식과 제1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전북 SNS관광 기자단 워크숍은 새로 조성된 도내 관광지뿐만 아니라 전북의 명소인 진안 마이산 탐사, 가위박물관, 예료에듀센터 등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탐방 결과를 자국어와 자신들의 블로그 및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며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에게 전북을 알리는 바이럴 마케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연말에 전북 SNS 관광기자 개인별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개인별 홍보실적을 평가해 실적이 우수한 참가자는 포상을 실시하고 이들을 통해 전북을 국내외에 알려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도록 온라인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